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농어촌  그린기차 ESG 2030
보도일시	2022. 6. 23 (목) 13:00	배포일시	2022. 6. 23 (목) 13:00
담당부서	미래전략실 기후정책추진단	책임자	단장 최영은(061-338-5711)
		담당자	과장 이동건(061-338-5713)

농어촌공사, 환경부문 실행력 강화해 ESG경영 실천 꺾걸음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실천 방안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ESG경영 중 환경(E)부문 실행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가 추진 중인 환경 부문은 에너지 전환(Energy), 온실가스 감축(Carbon Zero), 기후변화 적응(Operation) 세 가지로 이중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실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방향을 정립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상반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공사 소유 농업기반시설과 건물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확정하고 매년 2%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특히 수송 분야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적응 실천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167개 시군에 대한 기후 취약성 및 영향 평가에 더해 기후변화 정책 유관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평균 기온상승과 폭염 일수는 대폭 증가한데 비해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고 호우 일수 지역별 편차까지 크게 나타나 선제적 가뭄·홍수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기후변화센터를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각 기관별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매년 1회 이상 정례적인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4개 기관 : 기후변화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녹색기술센터, Green Idea Lab

김병수 부사장(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공사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저탄소 농어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